

# 福沢諭吉 지리서에 나타난 외국지명의 한자표기 연구\*

변상숙\*\*  
yewonss@empas.com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메이지기 문헌과의 비교분석    |
| 2. 福沢諭吉의 지명표기에 대한 인식    | 4.1 『西洋事情』의 한자표기와 비교 |
| 3. 『西洋事情』과 『世界國盡』의 지명표기 | 4.2 『世界國盡』의 한자표기와 비교 |
| 3.1 단일한 한자표기 지명         | 5. 마치며               |
| 3.2 다른 한자로 표기된 지명       |                      |

主題語 : 후쿠자와 유키치(Fukuzawa Yukichi), 외국지명 표기(the foreign place notation), 중국식 표기(Chinese style notation), 일본식 표기(Japanese style notation), 표기양상(aspect notation)

##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막부 말기와 메이지 초기에 출판된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지리서를 통해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외국지명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으며, 기존의 한자표기 수용과 새로운 한자표기의 창출이라는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의 외국지명에 대한 표기는 1945년 이후 일부 관용적인 지명 표기를 제외하고 현재는 가타카나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이 마련되기 이전 일본에서 사용된 문자는 한자와 가나로 구분된다. 한자표기의 경우 미국, 아프리카, 프랑스, 이탈리아는 「亜米利加/America」, 「阿非利加/Africa」, 「佛蘭西/France」, 「伊太利/Italia」를 보편적인 표기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자표기 지명은 표기법 제정 이전까지 동일한 지명에 여러 한자가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0645)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강사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식 표기법을 그대로 따른 「亞美里加」, 「亜墨利加」, 「阿墨刺加」, 일본어의 음운체계에 맞는 일본식 표기 「亜米利加」, 그리고 미국의 국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기 「花旗」와 원어의 발음에 충실한 「弥利堅」으로도 표기되어 하나의 지명에 다양한 표기 유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자표기 외국지명은 16세기말 이전에는 주로 중국에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한자를 이용하여 만든 세계 지도와 지리서가 일본에 전래되면서 부터이며, 에도시대 이후는 서양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중국식 표기를 수용하는 한편 일본의 자국 음운체계에 맞는 한자를 이용해 독자적인 표기법을 새롭게 만들어 세계 지명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외국지명을 한자 표기하는데 있어서 기존 표기 수용과 새로운 표기법의 창출이라는 관점은 막부 말기부터 여러 문헌에서 시도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표기를 수용하면서 표기를 취합하려는 의식과 새로운 표기법에 대한 서민 계몽이라는 의식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리서의 성격은 다른 문헌과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후쿠자와 유키치의 외국지명에 대한 한자표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메이지 초기 독본용 교과서의 한자 표기된 지명에 대한 연구로서 미즈모치 구니오(水持邦雄, 2009)<sup>1)</sup>를 들 수 있다. 미즈모치는 한자 표기되는 지명 가운데 일반적인 표기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동일 지명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둘 셋의 표기법이 존재하는 것 중 표기 선택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중국 표기와 관련하여 규명하고 있다. 여기서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는 당시 중국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사용한 『智環啓蒙』을 일본어로 번역한 『啓蒙智惠之環』<sup>2)</sup>이다. 중국 교과서를 번역한 것이므로 번역자의 번역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중국식 표기를 그대로 사용했거나 반대로 번역자 나름의 해석이 가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즈모치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啓蒙智惠之環』의 한자표기 지명에 대하여 『世界國盡』과 『西國立志編』<sup>3)</sup>의 표기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못한 표기를 비교 대조한 양식을 취하고 있다. 미즈모치에서는 세 문헌에 나타난 일부 외국지명 표기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논문을 전개시키고 있지만, 세 문헌의 표기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아라카와 기요히데(荒川清秀)<sup>4)</sup>는 의역된 「劍槁」, 「牛津」, 「聖林」, 「桑港」 네 지명을 중심으

1) 水持邦雄(1990)「明治初期における外国地名の漢字表記について」『金沢大学語学・文學研究』19号、金沢大学教育学部国語国文学会、pp.7-11

2) 古田東朔(1969)「啓蒙智惠之環」『近代語研究』第2集、武藏野書院

3) 中村正直(1877-1878)『西國立志編』修學堂

4) 荒川清秀(2000)「外国地名の意識—「牛津」「聖林」「桑港」—」『文明21』5、愛知大学国際コミュニケー

로 지명에 대한 한자가 모두 의역된 것을 순의역이라 칭하고, 앞과 뒤 어느 한쪽이 부분적으로 의역된 것을 반의역이라 칭해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의역된 지명도 원래는 음역에서 출발하여 긴 시간동안 음역된 역사를 지니며, 어느 시점을 경계로 의역으로 전환되었지만, 이것이 중국인의 발상인지 아니면 일본인의 발상인지 또는 서양인의 발상의 전환인지를 규명하고자 여러 문헌의 초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몇 개의 지명만을 제시하여 지명 표기의 생성 및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연구자로는 王敏東(Wang, Ming-Tung)<sup>5)</sup>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당히 방대한 문헌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즉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 지리서, 지도, 기행문, 문학작품, 교과서, 절용집(節用集), 사전, 백과사전, 신문 등을 포함시켜, 외국지명 표기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제 외국지명 표기가 일본에서 통용될 수 없었던 최대의 이유를 양언어의 음운체계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통해서 외국지명 표기사를 다루는 논문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자료로서 활용될만하다. 그러나 아라카와와 왕민둥에서는 한정된 지명에 대해서만 통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다뤄지지 않은 나머지 지명에 대한 고찰의 한계점을 지닌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메이지 이전과 메이지의 외국지명 표기양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면서 메이지기 외국지명 표기의 문제를 근대인의 표기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福沢諭吉의 지명표기에 대한 인식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명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869년 『世界國盡』의 범례에서 후쿠자와 유키치 자신이 직접 밝힌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ちめいじんめいとう せいやう よこもじ よみ ほぼ いん ちか たてもじ あて ころい ほんやくしや おもひおもひ  
 地名人名等は西洋の横文字を読んで略その音に近き縦文字を当ることなれば古来翻譯者の思々  
 いろいろ もんじ もち おな とち ふたつ みつ そのな に また あらひ たうじん ほんやくしよ み  
 に色々の文字を用ひ同じ土地にても二も三も其名あるに似たり又或は唐人の翻譯書を見て  
 その やくじ まね から もじ たういん もつ せいやう もじ あて たういん あか  
 其訳字を真似したつもありこれは唐の文字の唐音を以て西洋の字音に当たるゆへ唐音に明る  
 がくしやたち わか われわれとも すこ わか ゆへ この しょ ちう つとめ ほんじん わかり やす  
 き学者達には分るべけれども我々共には少しも分からず故に此書中には努て日本人に分り易

シオン学会, pp.95-109

5) 王敏東(1995)『外国地名の漢字表記についての通時的的研究』大阪大学博士学位論文, pp.9-15

き文字<sup>もじ</sup>を用<sup>もち</sup>るやうにせり(中略)

(지명, 인명 등은 서양의 가로 문자를 그 음에 가까운 세로 문자로 대체한 것으로 예로부터 번역자 각자가 여러 문자를 사용하여 같은 지명에도 둘 셋의 표기가 존재한다. 또한 중국인의 번역서에서 모방한 표기는 중국의 문자인 중국음에 서양의 자음을 맞춘 것이어서 중국어를 아는 학자들만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는 가능한 한 일본인에게 익숙한 문자를 이용하기로 했다.)

상기 범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번역자에 따라 다양한 문자로 표기한 지명이 존재하며, 여기에 중국어 음에 기초한 중국식 표기까지 가세하여 일본인이 알기 어려운 지명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中略)例へば南<sup>みなみ</sup>亜<sup>あ</sup>米<sup>めい</sup>利<sup>り</sup>加<sup>か</sup>の「<sup>ぺい</sup>り<sup>りゅう</sup>」といふ<sup>ところ</sup>処へ<sup>へい</sup>平<sup>しる</sup>柳<sup>と</sup>と記<sup>し</sup>あれば<sup>かんべい</sup>勘<sup>ぺい</sup>平<sup>ぺい</sup>の平<sup>じ</sup>の字<sup>やうりゅう</sup>と楊<sup>りゅう</sup>柳<sup>じ</sup>の字<sup>なり</sup>なりと憶<sup>むね</sup>に記<sup>し</sup>しておぼ<sup>やす</sup>へ易<sup>し</sup>り<sup>りゅう</sup>とり<sup>りゅう</sup>と<sup>の</sup>違<sup>な</sup>などは固<sup>より</sup>論<sup>ず</sup>るに<sup>たら</sup>ず<sup>べんがる</sup>弁<sup>げん</sup>輕<sup>る</sup>の<sup>字</sup>字<sup>は</sup>弁<sup>げん</sup>慶<sup>じ</sup>の<sup>字</sup>字<sup>なり</sup>なり論<sup>ろん</sup>頓<sup>どん</sup>の<sup>論</sup>論<sup>の</sup>字<sup>は</sup>論<sup>ろん</sup>語<sup>ご</sup>の<sup>論</sup>論<sup>の</sup>字<sup>なり</sup>なり(中略)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의 페루를 「平柳」라고 표기하면 「平」는 「勘平」의 「平」에서, 「柳」는 「楊柳」의 「柳」를 취해 기억하기 쉽게 하고(りゅう와리ゅう의 차이는 논하지 않는다) 벵갈 「辨輕」의 「辨」은 「弁慶」의 「弁」, 런던 「論頓」의 「論」은 「論語」의 「論」의 글자이다.)

구체적으로 지명표기에 사용한 한자를 어떤 글자에서 따 왔는지를 밝히고 있다. 페루 「平柳」의 표기는 「勘平」6), 「楊柳」7)에서 각각 유사한 발음체계를 지니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벵갈과 런던의 지명에 대해서도 「弁慶」8), 「論語」9)에서 각각 필요한 한자를 빌려다 지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지명에 후리가나를 달아 병기하고 있다.

『世界國盡』은 앞선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영국과 미국의 지리서와 역사서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을 속문으로 번역한 지리서의 성격을 지닌다. 시간적으로 『世界國盡』의 범례에서 밝히

6) 간페이는 하야노 간페이(早野勘平)를 말하며, 인형 조루리(浄瑠璃)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7) 삼십삼 관음의 하나인 요류관음(楊柳觀音)을 말한다. 오른손에는 버드나무를 들고 왼손을 가슴위에 얹은 모습으로 병난(病難)을 없애는 것을 본심으로 바란다.

8) 가마쿠라(鎌倉) 초기의 승려

9) 『논어』는 공자의 말을 어록의 형식으로 기록한 유학의 경전으로 『사서(四書)』의 하나다.

고 있는 지명의 한자표기에 대한 인식은 『西洋事情』의 초편과 외편이 발간된 이후로, 서양여행 안내서 역할을 한 『西洋旅行案内』와 조약을 체결한 11개국의 국기와 사정을 소개한 『條約十一國記』보다 2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世界國盡』 이전의 『西洋事情』, 『西洋旅行案内』, 『條約十一國記』에서는 외국지명에 대한 한자표기에 획기적인 표기양상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世界國盡』의 범례 가운데 보편적인 표기 즉 다른 문헌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지명표기가 이 세 권의 저술서에 확인된다. 이와 달리 『世界國盡』은 한자표기 지명의 역사가 긴 아시아 계통과 선진 국가들의 국명은 기존 표기를 그대로 수용하되 비교적 근대에 들어서 소개한 지명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인물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한자를 빌려 새롭게 지명 표기를 재창출하여 소개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 『西洋事情』과 『世界國盡』의 지명표기의 실제적인 사용 비율을 살펴보도록 한다.

### 3. 『西洋事情』과 『世界國盡』의 지명표기

『西洋事情』과 『世界國盡』은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서적이다. 『西洋事情』은 초편이 1866년, 외편 1867년, 이편 1870년으로, 『世界國盡』은 이편이 완성되기 1년 전인 1869년 출판되었다. 양서는 시기적으로 유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층을 미리 상정하여 책을 썼기 때문에 같은 지리서<sup>10)</sup>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문체와 표기, 사용문자 등에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쓴 『西洋事情』에서는 기존 표기를 수용한 형태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世界國盡』에서는 비교적 지명표기의 역사가 오래된 지명에 대해서는 기존 표기를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근대에 새롭게 소개된 지명에 대해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한자표기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10) 唐沢富太郎(1956)『教科書の歴史』創文教, pp.83-88에서는 메이지기 지리교과용 서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순서	저자	발행년도	도서명	소학단계
1	福沢諭吉	1866-1870	『西洋事情』	上 8級
2	福沢諭吉	1869	『世界国尽』	下 4-1級
3	松山棟菴	1870	『地学事始』	下 1級
4	内田正雄	1871	『輿地誌略』	上 7-1級
5	瓜生寅	1872	『日本国尽』	下 5級
6	市岡正一	1874	『皇國地理書』	上 8級

&lt;표1&gt; 『西洋事情』과 『世界國盡』의 지명 표기율

표기	『西洋事情』				『世界國盡』			
	별개어수	비율(%)	전체어수	비율(%)	별개어수	비율(%)	전체어수	비율(%)
한자표기	39	13.09	1,862	69.79	171	89.53	442	94.85
가나표기	250	83.89	494	18.52	11	5.76	12	2.58
병용표기	9	3.02	312	11.69	9	4.71	12	2.58
합계	298	100.00	2,668	100.00	191	100.00	466	100.00

<표1>은 『西洋事情』과 『世界國盡』의 전체적인 지명 표기율로 한자 표기된 지명의 비율은 『西洋事情』이 『世界國盡』에 비해 적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어수를 비교하면 반대로 『西洋事情』에서 월등히 많은 지명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가나 표기에 있어서는 『西洋事情』에서는 가타카나 표기, 『世界國盡』에서는 히라가나 표기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다.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西洋事情』에서는 비교적 오랜 전통을 가진 한자표기 지명에 대해서는 기존 표기를 수용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지명에 대해서는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世界國盡』에서는 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쉬운 생활한자를 이용해서 모든 한자의 오른쪽에 지명의 읽는 방법을 히라가나로 표기하여 지명에 대한 전체적인 한자 비율이 높은 것이다. 『世界國盡』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범례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한자표기의 취합이라는 의식과 새로운 표기를 통해서 세계 지리를 알리려 한 목적이 부합하고 있다. 이하에서 『西洋事情』과 『世界國盡』의 한자 표기된 지명을 통해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고유명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3.1 단일한 한자표기 지명

전술한 바와 같이 『西洋事情』의 한자 표기된 지명은 기존의 표기를 수용한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해양명인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등의 의역한 지명에 대해서는 한자 표기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양서에서 동일하게 소개된 한자표기 지명은 다음과 같다.

Asia亞細亞 Austria奧地利 Belgie白耳義 China支那 Denmark噠國 England英倫 Europa歐羅巴 France  
 仏蘭西 Germany日耳曼 Gresia希臘 Hongkong香港 India印度 Inglez英吉利 Ireland阿爾蘭 Italy伊太利

Java爪哇 Olanda和蘭 Paris巴里斯 Portugal葡萄牙 Prussia普魯士 Russia魯西亜 Swiss瑞西 Sweden瑞典 Scotlan蘇格蘭

『西洋事情』의 39개 한자표기 지명 가운데 『世界國盡』에서도 그대로 사용된 표기는 24개이다. 나머지 15개는 『世界國盡』에서 소개되지 않은 지명이다. 비교적 단일하게 표기가 유지된 상기 지명들은 일찍부터 알려진 표기들로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지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개의 지명에서 복수표기가 확인된다. 미국의 명칭에 따른 표기 「亜米利加合衆國」 「合衆國」 이외의 이태리 「伊太利」, 잉글랜드 「英倫」, 네덜란드 「和蘭」에서 각각 다표기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태리는 3개의 표기가 사용되었는데 「伊太利」 「伊太里」 「伊多利」로, 『世界國盡』과 동일하게 소개된 「伊太利」는 『西洋事情』외편에서 한 차례 사용되었으며, 「伊太利」가 외편과 이편에서 모두 23번, 「伊太利」가 초편과 외편에서 4번 소개되고 있다. 잉글랜드는 양서에서 동일하게 표기된 「英倫」이 『西洋事情』의 초편에서 1번, 「英蘭」 역시 초편에서 1번, 네덜란드는 「和蘭」이 『西洋事情』의 이편에서 30번, 「荷蘭」이 초편과 외편에서 45번 사용되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세 지명에서 복수의 표기가 존재하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기 유사한 비율로 이들 표기가 다른 문헌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西洋事情』과 달리 『世界國盡』은 소책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명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복수표기는 거의 찾기 어렵다. 참고로 동일 연도인 1867년 간행한 『西洋旅案内』에 소개된 네덜란드는 「荷蘭」, 『條約十一國記』에서는 「和蘭」과 「伊太里」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잉글랜드는 동일하다.

### 3.2 다른 한자로 표기된 지명

『西洋事情』의 39개의 한자표기 지명 가운데 『世界國盡』에서 다른 표기 양상을 보이는 지명은 4개가 있다.

Arabia亜喇伯 London龍動 Turco土耳其 Washington華盛頓

먼저 아라비아 「亜喇伯」는 음역한 형태의 중국식 표기이다. 아라비아에 대한 가장 빠른 표기로는 1602년 마테오리치(利瑪竇)의 『坤輿萬國全圖』에서 「曷刺比亞」의 표기가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중국어 음에 맞는 중국식 표기이다. 이를 『世界國盡』에서는 일본의 음운체계에 맞는 형태로 치환하고 있다. 즉 「亜喇伯」의 다른 형태 「荒火屋」로 혼역하고 있다. 고유명사를

훈역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世界國盡』에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고안한 지명 가운데 특정 한자를 일본 고유의 방식으로 읽고 후리가나를 달아 소개한 지명이 다수에 이른다. 터키에 대한 표기는 포르투갈「Turquia」, 네덜란드「Turco」, 영어「Turk」의 어느 쪽 발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사용한 표기는 포르투갈어를 음역한 것을 사용한 경향이 있다. 즉 중국의 문헌에서 보이는 「土耳其」「土其其」「都魯机」등은 마지막 음절이 [ji]로 발음된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양서에서는 보이지 않고 반대로 「土其古」「土留古」의 마지막 음절인 「古」의 사용이 중국의 문헌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일본에서 새롭게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世界國盡』에서 독자적으로 고안한 「土留古」는 원어의 [ru] 발음에 가까운 한자 「留」를 배치하였는데 이 한자 사용은 다른 유사 발음을 동반하는 지명에도 다수 활용한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런던 「論頓」에 대해서는 범례에서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했듯이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알려져 온 사물이나 역사적인 인물을 칭하는 한자에서 따와 지명으로 대체한 경우다. 워싱턴 「華盛頓」에 대해서도 보다 일본어 발음에 근접한 한자로 대체하여 「和新頓」으로 음역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런던과 워싱턴의 영어 발음 [dɒn], [tɒn]에 동일한 한자 「頓」을 배치하고 있는 점이다.

### 3.3 가나가 한자로 표기된 지명

『西洋事情』은 한자 표기된 지명 이외에 가타카나 표기된 지명이 상당수 존재한다. 선진 국가들의 신문물과 사상 등을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지역과 지리가 소개되었는데 이런 지명을 모두 한자로 표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설령 한자로 표기한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후리가나를 달아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西洋事情』의 성격상 전체 지명에 후리가나를 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명에 대해서 가타카나로 표기 하였는데 이것을 『世界國盡』에서는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 동일 지명에 대해 『世界國盡』에서 한자로 표기된 것은 모두 25개로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留」: 尾留滿国 土留喜須丹 尾留知須丹 邊留社 土留古 宇良留 戶保留須喜 伊留久 須喜 内留河 志留良禮 恩 馬留馬里伊 阿留世里屋 馬留加國 輪留田島 和阿 戶留樓 宇良留山 治部良留多留 堂宇留 馬里留島 阿留邊山 宇留天保留富 能留英 新部平土留 保留府 須德保留武 雁保留仁屋 門土里留 入世留久 猿和土留 保留根尾 女留保論 虎留鹿 「土留古」



<표2> 가타카나의 한자표기 지명

순서	원어	『西洋事情』	『世界國盡』
1	Algeria	알제리	阿留世里屋(あるぜりや)
2	Brazil	브라질리	武良尻(ぶらじり)
3	California	카리홀니야	雁保留仁屋(かりほるにや)
4	Canada	카나다	金田(かなだ)
5	Corsica	콜시카	虎留鹿(こるしか)
6	Cuba	큐바	久場(きゆば)
7	Danube	다니우브	駄入部(だにうぶ)
8	Egypt	에지프트	衛土府都(えじふと)
9	Gibraltar	지브랄탈	治部良留多留(じぶらるたる)
10	Kamchatka	카무사ッカ	嘉無薩加(かむさつか)
11	Lyon	리온	里園(りおん)
12	Madrid	마드리트	麻土律戸(まどりつど)
13	Mexico	메キシ코	女喜志古(めきしこ)
14	Palestine	바레스타인	羽礼須多院(はれすたいん)
15	Persia	펠시야	辺留社(べるしや)
16	Sandwich	산드위치	山土逸地(さんどいっち)
17	Sardinia	살르지니아	猿路仁(さるじにや)
18	Scotland	스코치랜드	蘇格蘭(すこつとらんど)
19	Senegal	세네갈	瀬根賀宮(せねがみや)
20	Shiberia	시베리야	志辺里屋(しべりや)
21	Sicily	시칠리	獅子里(しゝり)
22	New York	뉴욕	入世留久(にうよるこ)
23	Turco	톨코	土留古(とるこ)
24	Vienna	위엔나	宇陰奈(ういんな)
25	Wurttemberg	울텐볼	宇留天保留富(うるてんぼるふ)

<표2>의 한자표기 지명은 스코틀랜드 「蘇格蘭」를 제외하면 『西洋事情』에서 가타카나로 소개된 지명은 『世界國盡』에서 새로운 한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한자와 가타카나를 병용해서 미국, 인도, 그리스, 파리, 베를린, 페테르부르크, 워싱턴의 9개 지명과 함께 자유롭게 『西洋事情』의 초편, 외편, 이편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가타카나 표기는 『世界國盡』에서 한자로 표기할 때 일본어 발음 하나에 한자 하나를 대응시킨 형식으로 한자의 음과 훈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기존의 중국식 발음에 기초한

한자를 통해서 외국지명을 이해했을 때보다 쉽게 외울 수 있는 이점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世界國盡』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7.5조의 문체, 한자 히라가나 혼용문, 그림삽입 등을 활용해서 정확한 지리와 역사정보를 국가형성기의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

한편 『世界國盡』의 음역한 한자표기는 이를테면 지브롤터「治部良留多留」와 팔레스타인「治部良留多留」에서처럼 일본어 발음에 충실하게 한자를 대응시킨 결과 지나치게 지명이 길어지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는 논의되지 않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burg)에 대해서도 음역하여 일본어 발음「しんとぺいとるぼるふ」에 따라「新都平土留保留府」로 소개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한 기존 표기 방식은 어두의 경우「Saint」의 의미「聖」의 한자를, 어미「burg」의 경우는 작은 성을 의미하는「堡」의 한자를 이용해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는 어두음을 생략하여 페테르부르크<sup>13)</sup>「彼得堡」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彼得堡」는 『西洋事情』에서도 소개된 지명이며, 다른 문헌에서도 보편적으로 보이는 표기형식이다.

『世界國盡』의 가장 큰 특징은 원어를 음역하거나 혼역할 경우 일본어 발음에 근접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2>의 혼역한 형태를 취하는 브라질과 캐나다의 표기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발음체계를 가지는 못하는 경우다. 브라질「武良尻」의 어미 부분의 한자는 일본어에서 엉덩이를 나타내는「シリ」에서 온 것으로, 고유명사에 한자의 의미를 가리키는 부분을 따와서 활용하고 있다. 물론 한자가 뜻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캐나다「金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코르시카「虎留鹿」의 일본어 발음「シカ」에도 사슴을 의미하는「鹿」의 한자를 대응시키고 있다. 이밖에 흥미로운 지명으로 시칠리「獅子里」에서 사자를 나타내는「獅子」를 그대로 지명에 적용하고 있다. 자칫 음역한 지명과 혼역한 지명의 한자 사용으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 보이지만 『世界國盡』은 총루비<sup>14)</sup>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한자와 후리가나라는 조합이 지명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2) 源昌久(1997)「福沢諭吉著『世界国盡に関する一研究-書誌学的調査-』『空間・世界・地理思想』第2号、p.6

13)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도시로 제정 러시아 때는 페테르부르크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1914년 페트로그라드(Petrograd)로 개칭되었다가 1924년 레닌이 죽자 그를 기념하여 레닌그라드로 불렸다.

14) 총루비(総ルビ)는 문장의 모든 한자에 후리가나를 단 형태를 말한다.

「あやとりには、ひとで<sup>りょうて</sup>両手の<sup>ゆび</sup>指で<sup>そうき</sup>操作しながらつくりだすやりかたと、ふたりで<sup>うけ</sup>受け<sup>わた</sup>渡ししながら<sup>たが</sup>互いにやりとりをし、<sup>かたち</sup>形を<sup>か</sup>変えていくやりかたがあります」

## 4. 『西國立志編』과 비교분석

여기서는 메이지기 다른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추구하고자 했던 지명에 대한 인식과 표기의 독자성을 어떻게 구축해 갔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비교 대상은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의 『西國立志編』(1870~1871)<sup>15)</sup>이다. 『西國立志編』은 한국에서도 1906년 잡지 『朝陽報』에 게재된 『自助論』, 1918년 최남선역의 『自助論』, 1923년 홍영후역의 『青年立志編』이 있다.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西國立志編』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적류와 유사한 시기의 문헌이며, 근대 일본의 교육과 사상 등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서적이라는 점, 그리고 많은 외국지명을 소개하고 있어 근대라는 한정된 시기의 표기를 고찰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 4.1 『西洋事情』의 한자표기와 비교

우선 『西國立志編』에 소개된 한자표기 지명은 해양명과 강, 산을 제외하면 221개다. 이 가운데 음역한 지명이 212개, 의역한 것이 9개의 지명에서 보인다. 『西洋事情』과 동일한 표기 양상을 보이는 지명은 모두 21개로 다음과 같다.

America亞米利加/合衆國 Arabia亞喇伯 Asia亞細亞 Belgium白耳義 Britain不列顛 Europa歐羅巴  
Germany日耳曼 Gresia希臘 Hispania西班牙 India印度 Inglez英國/英吉利 Latin羅甸 Olanda和蘭/荷蘭  
paris巴里斯 Portugal葡萄牙 Prussia普魯士 Roma羅馬 Scotlan蘇格蘭 Siam暹羅 St. Peterburg彼得堡  
Sweden瑞典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에서 둘 셋의 표기 사용이 확인되는데 이는 양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과 합중국을 하나로 합쳐 혼용하여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

『西洋事情』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표기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7지명으로 다음과 같다.

15) 『西國立志編』은 中村正直가 영국의 사무엘 스미스(Samuel Smiles)의 『Self-Help』증정판을 메이지3년과 4년에 걸쳐 전11권으로 번역한 것이다.

	『西洋事情』	『西国立志編』
Austria	奧地利	奧土地利
Australia	澳大利亞	澳土拉利
Frnce	佛蘭西	法蘭西
Italia	伊太利 伊太里 伊多利	以太利 意太利
London	龍動	倫敦 蘭敦
Russia	魯西亞	魯西亞 俄羅斯
Swiss	瑞西	瑞士

다른 표기로 나타난 지명의 경우 전자와 후자 모두 기존의 표기 방식을 수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魯西亞」「俄羅斯」는 전통적인 중국 계통의 표기 방식을 따른 것으로 특히 「俄羅斯」는 네덜란드식 발음을 반영한 「オロシヤ」를 한자로 음역한 형태다. 이에 반해 영어식 발음의 「Russia ロシヤ」에 대응하는 일본식 표기 「露西亞」가 존재했지만 양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자와 후자의 표기양상 가운데 어느 쪽의 표기가 통상적으로 사용된 표기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근대 초기의 문헌에 소개된 외국지명에 대한 한자표기 대부분이 번역자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2 『世界國盡』의 한자표기와 비교

『西洋事情』과 『西国立志編』의 비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지명군은 대체적으로 『世界國盡』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는 다른 표기 형태로 사용된 지명을 소개하기로 한다. 『世界國盡』에서 소개된 지명 중 『西国立志編』에서 이표기로 사용된 것은 17개다.

	『世界國盡』	『西国立志編』
Africa	阿非利加	亞弗利加
Algeria	阿留世里屋	亞利知爾
Arabia	荒火屋	亞刺伯
Athens	安全州	雅典
Bengal	辨輕	榜葛喇
Canada	金田	加拿他
Denmark	噠國	噠馬
Egypt	衛士府都	埃及
Ireland	阿爾蘭	愛蘭

	『世界國盡』	『西國立志編』
Jamaica	邪麻伊嘉	牙賀加
London	論頓	倫敦 蘭敦
Norway	能留英	哪耳回
Persian	辺留社	波斯
Syria	尻屋	細里亜
Swiss	瑞西	瑞士
Turkey	土留古	突厥
Zealand	新地位蘭土	牛西蘭

아프리카, 아일랜드, 덴마크, 스위스 「阿非利加」 「阿爾蘭」 「連國」 「瑞西」 를 제외하면 모두 새롭게 한자를 조합해서 만든 지명이 사용되고 있다.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표기 유형을 재창출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과 여성 등 서민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국가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서민에게 세계지식을 보급시키려한<sup>16)</sup> 후쿠자와 유키치의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다.

아프리카 「阿非利加」 는 『西洋事情』 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지명으로 중국식 표기법을 수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西國立志編』 의 「亜弗利加」 는 일본식 표기법을 수용한 형태다. 즉 「Africa」 의 「fu」 발음에 대응하는 한자 「非」 와 「弗」 는 전자를 일본어 발음으로 읽으면 [i] 모음으로 되므로 원음과 달라진다. 이런 이유에서 초기 이용되었던 아프리카에 대한 한자표기 「阿非利加」 에서 「亜弗利加」 를 채택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한 표기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후쿠자와 유키치의 표기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阿爾蘭」 「連國」 「瑞西」 은 『西洋事情』 에서 수용한 표기 형태인데 『西國立志編』 에서는 다른 표기를 따르고 있다. 이밖에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고안된 지명군은 『世界國盡』 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의 다른 저서는 물론이고 동시대의 다른 문헌에서도 거의 찾기 어렵다. 이유는 『世界國盡』 의 독자층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과 아동이라는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유명사인 지명에 한자의 음과 훈을 총루비 형태로 혼용하는 것은 경제성을 떨어뜨리며 지나치게 실험적인 측면이 강하다보니 실질적으로 활용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世界國盡』 과는 달리 『西國立志編』 에서는 기존의 표기를 수용한 형태를 취하며, 나카무라 마사나오에 의해 개인적으로 고안한 번역 유형을 취하는 지명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16) 川村博忠(2003) 『総合人間科学』 第3号, 総合人間・文化学部、文明史学研究室, p.24

## 5. 마치며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리서에 나타난 외국지명의 한자 표기와 이를 메이지기 다른 문헌과 비교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西洋事情』의 외국지명 표기는 근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한자 표기를 수용하여 소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비교적 단일한 표기 형태를 보이지만 몇 개의 지명에서 복수표기의 사용이 확인되므로 표기의 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世界國盡』의 외국지명 표기는 『西洋事情』과 동일한 일부 지명을 제외하면 새로운 한자를 조합하여 음역과 훈역으로 나타나는 지명이 많다. 특히 생활한자를 이용해서 일본어 발음에 대입시켜 음역하거나, 일본어에만 존재하는 한자의 훈을 이용한 방법으로 지명을 표기하고 있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층으로 한 지리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世界國盡』의 표기 형태는 다른 지리서와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명에 대한 한자표기 인식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西洋事情』과 『西國立志編』과의 비교분석에서는 양서에서 대체적으로 유사한 표기 사용이 확인된다. 그러나 양서에서 이표기로 쓰인 지명을 보면 『西洋事情』에서는 기존의 보편적인 표기를 수용한 형태를, 『西國立志編』에서는 기존 표기를 따르되 일본어 발음에 적합한 표기 형태, 한자의 획수가 적은 한자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世界國盡』과의 비교분석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시도한 것과 같은 표기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번역 유형은 찾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리서는 기존의 표기를 수용하여 답습하는데 머물지 않고 근대 일본인의 세계지리에 대한 인식을 넓혀 가는데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參考文獻】

- 荒川清秀(2000)「外国地名の意識-「牛津」「聖林」「桑港」-」『文明21』5, 愛知大学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pp.95-109
- 上野力(1981)「明治初期の外国地名表記」『常葉學園短期大学紀要』13, 常葉學園短期大学, pp.23-30
- 河村博忠(2003)「明治初期の文明開化と地理教育」『総合人間科学』第3巻, p.24
- 斎藤毅(2005)『明治のこぼれ-文明開化と日本語』講談社, pp.78-136
- 進藤咲子(1975)『『西洋事情』の文章』『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概要』36, 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1~20
- \_\_\_\_\_ (1981)『明治時代語の研究-語彙と文章』明治書院, pp.90-95
- 唐沢富太郎(1956)『教科書の歴史』創文教, pp.83-88
- 西浦秀之(1971)「幕末・明治初期新聞にあらわれた外国地名呼称・表記について」『皇学館大学紀要』9, 弘前

大学, pp.151-202

源昌久(1997)「福沢諭吉著『世界国尽』に関する一研究-書誌学的調査」『空間・世界・地理思想』第2号, p.6

飛田良文・佐藤武義(2003)『現代日本語講座 第3巻-文字・表記』明治書院, pp.99-103

水持邦雄(1990)「明治初期における外国地名の漢字表記について」『金沢大学語学・文學研究』19号, 金沢大学  
教育学部国語国文学会, pp.7-11

山本彩加(2009)「近代日本語における外国地名の漢字表記-明治・大正期の新聞を資料として」『千葉大学日  
本文化論叢』10, 千葉大学文学部日本文化学会, pp.88-108

山本政秀(1965)『近代文体發生の史的研究』岩波書店, pp.104-116

湯浅彩央(2012)『航米日録』の外国地名表記『中西健治教授退職記念論集』立命館大学部, pp.813-820

王敏東(1995)「外国地名漢字表記通時的的研究」大阪大学博士学位論文, pp.9-15

---

논문투고일 : 2016년 12월 21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1월 06일  
1차 수정일 : 2017년 01월 24일  
2차 수정일 : 2017년 02월 01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2월 15일

---

---

 <要旨>
 

---

## 福沢諭吉 지리서에 나타난 외국지명의 한자표기 연구

변상숙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리서에 나타난 외국지명의 한자 표기와 이를 메이지기 다른 문헌과 비교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西洋事情』의 외국지명 표기는 근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한자 표기를 수용하여 소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비교적 단일한 표기 형태를 보이지만 몇 개의 지명에서 복수표기의 사용이 확인되므로 표기의 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世界國盡』의 외국지명 표기는 『西洋事情』과 동일한 일부 지명을 제외하면 새로운 한자를 이용해서 음역과 훈역으로 나타나는 지명이 많다. 이러한 유형은 다른 지리서와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명에 대한 한자표기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西洋事情』과 『西國立志編』과의 비교분석에서는 양서에서 대체적으로 유사한 표기 사용이 확인된다. 그러나 양서에서 이표기로 쓰인 지명을 보면 『西洋事情』에서는 기존의 보편적인 표기를 수용한 형태를, 『西國立志編』에서는 일본어 발음에 적합한 표기 형태, 한자의 획수가 적은 한자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世界國盡』과의 비교분석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시도한 것과 같은 표기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번역 유형은 찾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study on Kanji notation of the foreign place names  
 in Hukuzawa's geography works

*Byun, Sang-Suk*

In comparison analysis of Hukuzawa's works and other ones in Meiji period, the features of the notations in his are examined as follows.

First, Kanji notations commonly used in Modern Era are introduced in 『西洋事情』. Single unified writing system is comparatively prevailing but also multiple one exists. There remains confusion about the notation.

Second, newly-formed Kanji notations using transliteration or transcription in 『世界國盡』 are abound aside from a few same words in 『西洋事情』. It is believed that his perceptions on Kanji notation of the place names are obvious.

Third, there are similar notations but also minor differences in both 『西洋事情』 and 『西國立志編』 through comparison analysis. The minor gaps are explained as follows. Widely used notations are prominent in 『西洋事情』. On the other hand, proper notations for Japanese pronunciation and Kanji with low number of strokes are common in 『西國立志編』. His translation type strive for creation of new writing in 『世界國盡』 is hard to be found in both works.